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image features a large, faint watermark of the Jeju National University logo in the background. The logo is circular, containing a stylized flame or leaf design in blue, green, and purple. The text 'JEJU NATIONAL UNIVERSITY 1952' is written around the top half of the circle, and 'JEJU 1952' is written in the center. Below the logo, the text '제주대학교 대학원' is visible.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한 윤 미

2011년 2월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혜숙

한 윤 미

이 논문을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1년 2월

한윤미의 가정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1년 2월

목 차

국문초록

I. 서론

| | |
|------------------|---|
|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 1 |
| 2. 연구문제 | 4 |
| 3. 용어의 정의 | 5 |

II. 이론적 배경

| | |
|------------|----|
| 1. 가족응집성 | 6 |
| 2. 가족적응성 | 9 |
| 3. 학교생활적응 | 12 |
| 4. 선행연구 고찰 | 14 |

III. 연구 방법

| | |
|----------|----|
| 1. 연구 대상 | 18 |
| 2. 연구 절차 | 20 |
| 3. 측정 도구 | 20 |
| 4. 자료 분석 | 22 |

IV. 연구결과

| | |
|-----------------------------|----|
| 1. 가족응집성 · 적응성의 현황 | 23 |
| 2. 학교생활적응의 현황 | 25 |
| 3. 변수에 따른 가족응집성 · 적응성 | 26 |
| 4. 변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 29 |
| 5. 가족응집성 · 적응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 32 |
| 6. 가족응집성 · 적응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 34 |

V. 요약 및 결론

| | |
|-------|----|
| 1. 요약 | 37 |
|-------|----|

| | |
|------------------|----|
| 2. 결론 및 제언 | 41 |
| 참고문헌 | 45 |
| 부록 | 50 |
| ABSTRACT | 57 |



표 목 차

| | |
|-------------------------------------|----|
| 【표 1】 가족응집성의 특징 | 8 |
| 【표 2】 가족적응성의 특징 | 10 |
|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9 |
| 【표 4】 가족응집성·적응성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21 |
| 【표 5】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21 |
| 【표 6】 가족응집성·적응성 영역별 전반적인 경향 | 24 |
| 【표 7】 연구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의 수준 | 25 |
| 【표 8】 변수에 따른 가족응집성·적응성(1) | 26 |
| 【표 9】 변수에 따른 가족응집성·적응성(2) | 27 |
| 【표 10】 변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1) | 30 |
| 【표 11】 변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2) | 31 |
| 【표 12】 가족응집성·적응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 33 |
| 【표 13】 가족응집성·적응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 34 |
| 【표 14】 변수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 36 |

<국문초록>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윤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가정관리학과

지도교수 김혜숙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느 정도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제주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설문지는 총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725부 중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총 695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한 뒤, t-test, ANOVA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이때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사는 지역, 학교유형, 학년, 성적, 가정형편, 동거가족, 남녀형제수,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은 중간이상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

로 교우관계, 학교규칙, 교사관계, 수업태도 순으로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을 살펴본 결과 중학교 1학년일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부모와 함께 사는 경우, 여자형제가 2명이상인 경우 가족응집성 수준을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적응성은 성적이 상일수록, 가정형편이 상일수록, 동거가족이 부모인 경우, 여자형제수가 1명 인 경우, 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모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하위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사관계는 남학생인 경우,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여자형제수가 없는 경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수업태도는 남학생인 경우,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동거가족이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인 경우, 여자형제수가 1명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이상인 경우,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수업태도가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학교규칙은 남학생인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여자형제가 1명인 경우, 부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부가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교규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다. 교우관계는 남학생인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교우관계가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여섯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수업태도가 좋으며,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교사와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 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여덟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교사관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응집성으로,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남학생인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남자형제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수업태도는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규칙은 남학생인 경우,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우관계는 남학생인 경우, 모의 직업이 주부인 경우 교우관계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게 지각하고 있으므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학교-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의 목적

인간은 처음으로 가족 안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성장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발달해가며 살아간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의 미성숙에서 성인의 성숙으로 옮겨가는 시기로서,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정체감 위기로 인한 좌절과 갈등을 겪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따라서 변화에 대한 적응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청소년은 아동에서 성인으로 도약하는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유래된 내재적인 불안정성으로 인해 적응이 순조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또한 이들은 많은 시간을 학교환경에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환경에의 적응은 청소년들에게 매우 절실하고도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적응은 개체가 환경과 균형적이고 조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신이 처한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므로(lazarus, 1969), 청소년의 적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중요한 환경 속에서의 생활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에게 가장 중요한 환경은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과 학교이다. 즉, 청소년의 가정은 일차적 생활환경으로서 생활경험, 문화경험, 문화전달·습득 및 인격형성의 장소인 자아거부의 태도를 결정짓는 장소이며 그들의 가치관, 동기, 태도 등의 행동경향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미숙, 1989).

환경은 적응의 개념에 있어 짚어봐야 할 핵심요소이다. 이 경우의 환경이란 개인의 흥미, 욕구, 가치 등으로 구성된 자아와 관련 있는 심리적 행동적 환경을 말한다. 자아의 욕구와 흥미 및 가치 등이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작용하며 개인은 이러한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건강하게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조화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적응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적

응을 성취한 개인은 스스로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현실적인 욕구들을 추구하고 또 충족시켜 나간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잘 해결해 나가므로 자신의 생활에 만족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취를 이룬 개인을 적응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정옥분(1998)은 가정생활 못지않게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청소년기의 학교에서의 적응은 인간이 생활하는 가정, 학교, 사회 등 모든 장에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가정 및 학교에서의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을 이해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는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고 또래들과의 관계를 통하여 자아수용 또는 학생들이 변화하는 사회적 환경에 바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는 곳이 학교라 할 때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실태를 보면 국내 고등학생들은 2004년 매일 76명꼴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 소속 열린 우리당 지병문(池秉文) 의원이 교육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전국 고교생 174만 6천여 명 가운데 2만 7천 630명(1.58%)이 강제 퇴학이나 자퇴 등으로 학업을 그만 뒀으며, 학업 중단 사유로 학교생활 적응 미숙이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가정불화 및 경제난(33.6%), 질병(5.1%), 품행불량(3.4%) 순으로 나타났다. 계열별로 보면 실업계 학생의 학업중단 비율이 3.33%로 인문계 학생의 0.85%보다 4배가량 높았고, 지역별로는 제주가 2.08%로 가장 높았고, 전북(2.01%), 충남(1.96%), 전남(1.89%), 광주(1.73%), 대구(1.14%) 등의 순이었다(중앙일보, 2005, 9, 13). 이와 같은 고등학생의 학업중단 혹은 중도탈락이라는 결과물은 중학교시기에 학교생활적응에 관련된 요인을 찾아내어 그러한 이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개입적 요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청소년 적응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관련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기존의 청소년의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적응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들이 적응의 지표로 긍정적인 측면이 아닌 부정적 측면에 초점을 두어 청소년의 문제 행동이나 부적응 행동을 연구했다(박장환, 1996). 이런 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가정 및 학교생활적응을 함께 연구하고자 한다.

가족의 영향이 지나치게 크거나 적을 때 청소년은 지적, 사회적 발달은 지장을 받게 되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적응성은 청소년의 상호작용 양식을 왜곡시키고 지나치게 적은 응집성은 가족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유대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반면, 지나치게 많은 응집성은 청소년을 가족 안에 묶어 두어 가족으로부터 독립을 방해하게 한다(장희숙, 1996). 따라서 가족기능이 기능적인 가족일수록 가족 개개인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되고, 기능성 수준이 낮은 역기능적 가족 개개인들은 정서적, 행동적 문제들을 보이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교사관계, 수업태도, 교우관계, 학교규칙 항목을 설정하여 학생의 태도와 반응을 통한 학교생활적응도를 평가하였다. 학교생활적응 문제는 교육에 관심을 갖는 학부모나 교사들의 가장 큰 관심이며,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부적응으로 교육기회를 상실하기보다 바람직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학교와 교사에게 부여된 임무 중 하나다. 하지만 학교생활에서의 완전한 적응과 부적응은 실제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사람이 적응은 이 양극 사이의 연속선상 어느 위치에 있는 정도의 차이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종현, 1994; 정현옥, 2007).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하는 문제는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변인이 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사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초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을 찾을 수 있다(박종일, 2005).

최미선(2005)의 연구에 의하면 교사의 지지는 수업태도, 학교규칙 준수, 학교생활 만족 등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학생의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구의 지지 또한 수업태도, 학교규칙, 학교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생활적응 연구에서 안규복(1986)은 학교생활 일반, 학교수업, 교사에 대한 태도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긍정적이라고 하였고 장호성(1987)은 중학생의 경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교우관계, 교사관계, 수업참여, 자기통제 영역에서 더 잘 적응하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없었다.

임영수(2003)는 청소년 중기에 해당하는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가족응집

성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연구한바 있고, 대학생 적응에 관한 연구(조명희, 박수선, 1999; 박유화, 2001)는 다수가 있다. 그러나 청소년 초기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분석하고자 복합순환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는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수준이 너무 높거나 낮지 않은 적당한 수준의 관계를 가질때 기능적인 가족으로 볼 수 있다. 즉, 가족응집성이 지나치게 분리되거나 밀착되어 있는 경우, 가족 적응성이 지나치게 경직되었거나 혼돈되었을 때 역기능 가족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의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을 살펴봄으로써 발달상 성장기에 있는 중학교 시기의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건강하게 적응하기 위해 필요한 가족내적 요소들이 무엇인지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력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가족적응성 및 응집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밝혀 중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3.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4.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 용어의 정리

가.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간의 친밀감, 또는 거리감, 정서적 지지와 같은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 갖는 정서적 유대와 한 개인이 가족체계 내에서 경험하는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를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에 의해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가족응집성 수준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나.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는 정도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말한다. 즉,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방식, 통제의 유형과 훈육방식 혹은 가족 규칙의 융통성을 발휘할수록 가족적응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에 의해 정의된 용어를 사용하였으며, 가족적응성 수준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등에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이 요구를 적절히 변화시키거나 환경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임영희, 2004).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을 교사관계, 수업태도, 교우관계, 학교규칙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이들 항목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일수록 학교생활적응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가족응집성(Family Cohesion)

가족응집성은 가족성원간의 상호의존성 또는 심리적 유대를 보여주는 것으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이다(Smets and Hartup, 1988; 이소연, 2003, 재인용). 가족은 가족구성원들로 이루어지며 이들 구성원들은 각기 가족 내 하나의 요소들로서 서로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을 해 나가면서 가족이라는 체계를 이루어 나간다. 즉, 구조 내에서 구성원들의 각기 독특한 속성들이 모여 단위를 이루고 전체로써 기능한다.

Olson과 그의 동료들(1995)은 가족응집성을 ‘가족 구성원이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정서적 유대’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는 한 가족 구성원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갖고 있는 연결과 분리의 감정이 어느 정도인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전귀연(1993)은 가족의 기능수행은 가족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성원간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가족성원간의 정서적 유대감 정도, 가족 내 역할, 규칙, 힘 등의 체계아래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족체계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가족이 공통적인 관심을 갖고, 오락 및 취미활동을 위하여 시간을 할애하며 가족성원 각자의 친구를 인정하며 받아들이는 등의 가족응집력을 갖게 된다. 따라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강하게 느끼면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고 가족이 생활하면서 상황적으로 처하게 되는 긴장이나 위기에 대한 저항력이 내적으로 갖추어지게 되어 가족이나 가족성원의 정서적 발달을 도모하고 기능적인 가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Bowen(1965)은 개인의 자아가 가족으로부터 분화되지 못하고 융합되어 있으면 개인의 자주적, 독립적 기능이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개인의 성숙과 자기실현을 위해서 가족과의 미해결된 감정적 애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미분화된 가족자아 덩어리’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Minuchin 등(1976)은 전체로서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체계들 간의 경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밀착 과잉분리 연속체(enmeshed disengaged)’라는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속체의 한쪽 끝에는 밀접하게 상호 연결된 관계를 특징으로 하는 밀착가족, 즉 응집성이 높고, 반대쪽 끝에는 가족소속감이나 단결감이 거의 없는 과잉분리가족 즉 응집성이 낮다고 하였다 .

가족응집성의 중간수준의 가족이 가장 기능적이라는 곡선적(curvilinear) 가정을 설정하였고, 이러한 가정을 Circumplex Model(복합순환모델)이라고 하였다(이상길, 2004).

복합순환모델에 따르면 가족응집성이란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이며 동시에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거리감을 느낀다면 가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응집성이 적당히 낮은 가족은 분리된 가족이며, 응집성이 적당히 높은 가족은 연결된 가족이다. 이러한 두 가지 가족체계수준에서만 가족이 효과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개인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유리되거나 속박된 가족은 서로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부족, 그리고 지나친 간섭과 밀착으로 인해 역기능적 가족이 된다(Olson, 2000).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은 가족응집력이란 가족 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정서적 유대감이며 가족의 응집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8가지 하위 변인들로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emotional bonding), 가족 외부환경과 하위체계들 간의 경계(boundaries), 지지가 이루어지는 대상과 정도(coalitions), 가족의 공동시간과 개인사적인 시간의 허용 정도(time), 가족의 공동친구와 개인사적 친구의 인정(friends), 의사결정 유형(decision making), 가족의 전체 오락 활동과 개인의 활동보장의 정도(interests recreation)에 따라 그 차원을 결정하였다. 가족응집성 차원은 연결·분리되어 있는 정도에 따라 응집이 지나치게 낮은 과잉분리(disengaged), 적당히 낮은 분리(separated), 적당히 높은 연결(connected), 응집이 지나치게 높은 밀착(erumeshed)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되어 진다.

다음의 【표 1】은 6가지 요인에서 이 네 가지의 수준이 각각 나타내는 특징에 대한 지표이다.

【표 1】 가족응집성의 특징

| | 과잉분리 | 분리 | 연결 | 매몰 |
|---------|-----------|---------------|-------------------|-----------------|
| 정서적 유대 | 매우 낮음 | 낮음 - 중간 | 중간 - 높음 | 매우 높음 |
| 가족의 경계 | 외부와의 경계: | | | |
| | 개방적 | 반개방적 | 반개방적 | 폐쇄적 |
| | 내부와의 경계: | | | |
| | 폐쇄적 | 반개방적 | 반개방적 | 개방적 |
| | 세대 간의 경계: | | | |
| | 경직 | 명확 | 명확 | 흔잡 |
| 연합 | 가족내 연합 약함 | 부부의 연합 명확 | 부부의 연합 강함 | 부모, 자녀연합 속죄양 |
| 친구 | 개인친구 | 개인친구, 가족친구 | 가족친구, 부모, 개인친구 | 부부, 가족친구 |
| 의사결정 | 개인결정 | 개별결정, 공동결정 | 공동결정, 개별결정 | 공동결정 |
| 오락 및 휴가 | 개별활동 | 개별활동, 가족활동 | 가족활동, 개별활동 | 가족활동 |

<출처 ; D.H.Olson, C.S.Russell, & D.H.Sprenkle, "Circump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 II : Empirical Studies and Clinical Intervention", in Vincent, John(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 Greenwich, Conn.: JAI Press, 1979; 정연호, 2004 재인용>

Minuchin, Rossman, Baker(1978)는 과잉 밀착된 가족 간의 강한 소속감은 가족 구성원들의 모든 경험을 지배하여 가족과 분리된 자아의식의 발달을 저해하고, 구성원 중의 한 사람에게 발생하는 일은 가족체계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하위체계간의 경계가 미분화되고 약하며 쉽게 뒤바뀔 뿐만 아니라 지나친 일체감과 공유감 때문에 개인적 자유도 없다고 하였다. 반면, 과잉 분리된 가족은 가족 구성원들이 지나치게 자주적이고 독립적으로 기능함으로써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한 때에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으며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도 가족들이 거의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가족응집성은 부모가 애정과 지지를 보여 줌으로써 자녀의 행동과 발달에 대

한 긍정적인 개입을 하는 것을 내포하는 개념이기도 하다. 자녀의 사회적 관계망과 발달은 부모가 제공하는 양적, 질적인 자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Otto and Atkinson, 1997; Amato and Rivera, 1999; McNeal 1999; 송미경, 2010 재인용). Gold and Yanof 등은 청소년기를 거치는 동안 부모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Olson 등은 이러한 응집성이야말로 타인과 신체적, 정서적, 지적으로 친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배양시킨다고 하였다(Roming and Bakken, 1991). 그러므로 가족응집성은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자존감에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가족응집성은 두 가지 요소, 즉 가족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정서적으로 연결된 정도와 가족체계 내에서 한 개인이 경험하는 자율성의 정도로 이루어진다(Olson, Sprenkle, and russell, 1979; Particia Noller and David Shum, 1990, 안경숙, 2006, 재인용).

가족응집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5개의 하위영역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Olson, 1985; 정희준, 1995; 이소연, 2003; 안경숙, 2006, 재인용).

- ① 정서적 결속감(emotional bonding) : 가족구성원 서로에게 느끼는 친밀감 및 가족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 ② 도움과 의논(supportiveness) : 가족 구성원끼리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자신의 일을 다른 가족과 의논하는 것.
- ③ 가족원간의 경계(family boundaries)유지 : 외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보다 가족구성원들과 잘 지내는 것과 가족의 일에만 관심이 있는 것.
- ④ 여가시간 및 친구 공유(time and friends) : 가족과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하고 서로의 친구를 받아들이는 것.
- ⑤ 활동의 공유와 행사참여(interests and recreation) : 가족이 함께 움직이는 일이 있으면 꼭 참석하고, 가족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

2. 가족적응성(Family Adaptability)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들에게 부여된 개인의 자율성과 가족이 함께하는 정도를 말하며, 가족의 변화를 허용하는 정도와 균형을 유지하려고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김민경, 2002).

Olson, Russell과 Sprenkle(1983)은 가족적응성이란 상황적으로 또는 발달 단계 상 일어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가족체계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및 규칙 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가족성원들이 가족체계를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가를 측정하였다. 이러한 가족적응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6가지 하위영역의 개념으로는 가족 구성원들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유형(assertiveness), 통제의 유형(control), 부모의 자녀에 대한 훈육 유형(discipline), 가족구성원간의 협상능력(negotiation), 역할확립 및 역할분담(role relationships), 가족규칙의 명확성 및 융통성(rules)이다. 하위영역들에 의해 측정되는 가족의 적응성은 변화 능력의 정도에 따라, 높은 점수부터 혼돈된 상태(chaotic), 융통적인 상태(flexible), 구조화된 상태(structured), 경직된 상태의 4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다음 【표 2】는 6가지 요인에서 이 네 가지의 수준이 각각 나타내는 특징에 대한 지표이다.

【표 2】 가족적응성의 특징

| | 경 직 | 구조적 | 융통적 | 혼 돈 |
|-----|------------------------------|--------------------------------|----------------------------|-------------------------------|
| 주 장 | 수동적, 공격적 | 단호한 주장 | 단호한 주장 | 수동적, 공격적 |
| 통 제 | 권위적 리더십 | 민주적 리더십 | 민주적 리더십 | 리더십 없음 |
| 양 육 | 권위적, 매우엄격 | 민주적 | 민주적 | 방임형, 매우관대 |
| 협 상 | 제한적, 문제해결능력 빈약 | 구조적, 문제해결능력 좋음 | 좋은 협상, 문제해결능력 좋음 | 무한정, 문제해결능력 빈약 |
| 역 할 | 역할경직, 역할고정 | 역할분담 | 역할확립, 역할분담, 역할변화 | 극적변화 |
| 규 칙 | 규칙경직, 함축적 규칙 小, 엄격한 규칙 준수 요구 | 규칙 변화 거의 없음, 명시적 규칙 多, 보통규칙 강요 | 변화 가능, 함축적 규칙 多, 때때로 규칙 강요 | 극적변화, 함축적규칙 多, 명시적규칙 無 임의적 적용 |

<출처 : O. H. Olson, C.S Russell, & D.H. Sprenkle, op. cit, p. 166 ; 정연호, 2004 재 인용>

Circumplex Model에서 가족적응성은 직선적인 관계이기보다는 곡선적인 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가족적응성의 수준이 매우 낮거나, 높은 '경직된 가족', '혼돈된 가족'은 역기능적인 가족이고, 그 수준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유통적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한다고 하였다(Olson et al, 1983; 정연호, 2004, 재인용).

박지영(1995)은 가족적응성을 '가족이 규칙을 세워서 유지하고 기꺼이 변화할 수 있는 정도'라고 설명하였으며 가족의 변화에 반응하는 유통성 정도, 가족의 지도력, 권력, 훈육 등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Beaver 등(1986, 1990)은 가족기능의 효율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가족역량을 '부정적 혼돈의 연속체'로 정의하였는데, 한쪽 끝에는 가장 유통성이 있고 적응성이 높으며 목표지향적인 체계를 두었고, 또 다른 끝에는 가장 유통성이 없고 미분화되고 비효율적인 체계를 두어 가족 기능의 수준에 따라 심한 역기능적 가족, 약간 역기능적 가족, 최상의 가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Olson 등(1979, 1983)은 변화와 안정의 균형을 잘 이룰 수 있는 체계는 적응성이 있다고 기본가정을 두었다. 이에 근거하여 가족적응성을 가족구성원이 상황적 과정과 발달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에서의 규칙, 역할, 권력구조 등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따라서 적응성(adaptability)이란 '가족체계가 상황이나 발달 단계의 요구에 따라 그 자신의 권력구조, 역할관계, 관계 규칙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이소연, 2003), 가족적응성을 진단하고 평가하는 구체적인 하위개념을 다음과 같다.

① 지도력(leadership): 가족 내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만이 담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주도 가능성도 인정하는 정도.

② 통제(control): 자녀의 의사결정과정 참여를 인정하는 정도.

③ 훈육(discipline): 부모가 자신에게 부과하는 훈육에 대해 자녀들이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

④ 역할과 규칙(roles and rules): 문제해결방식이 다양하고, 집안일을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맡기지 않으며, 가족 규칙의 변화를 인정하는 정도.

위 4가지 하위영역들에 의해 가족적응성이 측정되고 그 정도에 따라 경직

(rigid), 구조(structured), 융통(flexible), 혼돈(chaotic)의 4가지 집단으로 구분된다.

3. 학교생활적응

적응은 개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행위의 결과이다.

따라서 적응이란 개체와 환경간의 균형이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욕구 좌절이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적극적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장성순, 2006).

Allport(1961)에 의하면 적응이란 환경에 대한 자발적, 창조적인 행위이며 그러한 행위란 반드시 개인에게 안정감을 주며 결과적으로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치, 규범, 질서와 합치되어야 한다고 하였다(이예승, 2004). 또한 Morris는 적응이란 개인의 요구를 환경의 요구에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맞추고 개인의 요구를 현실 가능하도록 상황 내에서 잘 대처하려는 시도라고 설명했다(박유화, 2001).

Erikson은 적응을 환경에 대한 건전한 태도유지, 그리고 환경의 요구에 대처하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능력이라고 하였고, Lazarus(1969)에 의하면 적응이란 주어진 환경에 자신을 맞추는 과정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정의들을 종합하면, 적응이란 사람들이 주위 환경으로부터 받는 도전에 대처하고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Feldman, 1989), 개인이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개인과의 관계, 객관적인 환경과의 조화, 또는 그 사회가 가진 규범 질서에 대해 부합되고 일치된 행동을 함으로써 자기의 생활을 원만하게 영위하고 바람직하게 행동하는 양식이라고 판단된다.

학교 환경은 초기 아동기에서 시작하여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생활해야 하는 중요한 가정 밖의 환경이다(문은식, 2001). 특히 동료 집단과의 원만한 관계형성, 교실에서의 만족스러운 수행, 적절한 성취동기 지향은 이 단계에서 이루어야할 과제들이다. 따라서 개인에게 있어 성공적인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여기에서 학교생활적응이란 학생들은 교과활동, 특별활동, 기타 행사활동 등을

통하여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학생들이 여러 가지 활동에서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 및 학생들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러운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교육학 대사전, 1981; 김승미, 1998).

Spencer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특성과 학습 환경의 다차원적 성격 및 요구간의 교육적 적합성을 최대화하는 데 필요한 학교적응수준이라 정의 내리고,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학업동기, 학업성취, 학교 참여 지속성, 학교출석, 학습준비. 그리고 학교 졸업 등에서의 부적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김지혜, 1998).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다양한 개념들을 살펴보면, 먼저 학습의 차원에 비중을 두고 학업성적, 기초 지식에 대한 성취도, 문제행동 등 세 가지 측면에서 학교생활 적응을 본 연구가 있으며(Kurdek, et al. 1995), 학교생활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들을 자신의 욕구에 맞도록 변화시키거나 자신이 스스로 학교생활과 환경에 맞추어가는 것으로 본 학습자 주체의 능동적인 역할에 중점을 둔 연구도 있다(안영복, 1984). 또한 이러한 연구와 연장선상에서 학습자가 학교생활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적절히 이루어나가려는 대처방식, 즉, 학습자가 학교수업, 학교생활 및 교사와 학우들 간의 관계에 이르기까지 학교의 환경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노력을 학교생활적응으로 본 연구결과도 있다(김용래, 1993).

학생스스로의 평가에 따른 만족도를 기준으로 학교생활적응을 하고 스스로도 만족감을 느끼는 경우를 학교생활 적응으로 보았으며, 비슷한 경우로 Ladd와 Buhs, 그리고 Troop등도 학생들이 학교환경에 관심을 가지고 몰두하며 편안하고 성공적인 느낌을 갖는 정도를 적응으로 보았고(Betts and Ken, 2007; 송미경, 2010, 재인용), DuBois는 학업성적, 학교출석, 학습에 관련된 자아개념 등으로 학교생활 적응을 개념화하였다(김지혜, 1998). 한편, 학교 환경 내에서 학생들이 자신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환경을 변화시키는 동시에 환경의 요구에 맞추어 자신을 변화시킴으로써 균형을 이루려하는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과정으로서의 학교생활적응을 정의 내린 연구결과도 있다(김지혜, 1998). 한편, 주현정(1998)과 박연수(2003)는 학교생활적응을 학생의 모든 행동이 모든 학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 수업 및 학교생활에 대해 높은 동기와 흥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교규범에 순응하며 독립된 한 개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위의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란 학교생활과 연관된 학업적, 사회적, 정의적 측면에서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물리적이고 심리적인 학교환경에 순응하거나 그 환경을 변화시키고 조작하는 외현적, 내재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문은식, 2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생활에 흥미를 가지고 만족감을 느끼며, 교사나 친구들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학업에 있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학교의 규범·질서 등을 잘 수용하여 준수하는 것이라 보고자 한다.

4. 선행연구 고찰

가.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선행 연구

중학생들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을 성별, 학년, 가정형편, 성적, 형제수, 부 직업, 모 직업, 부 학력, 모 학력 등의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관련하여 살펴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성별에 따른 가족응집성의 차이를 살펴본 연구로서 가족체계와 대학생활적응을 연구한 김효원(2004)과 ‘아동이 지각한 가족체계의 특성’을 연구한 박용석(2003)은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성별은 관련이 없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어머니와 청소년자녀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여러 연구(박은주·김경신, 1995; 이상길, 2004; 김진희, 1989; 박소영, 1995; 임경희, 1998; 박용석 2003, 재인용)에서는 응집성의 경우 자녀가 딸이거나 여학생일 경우에 더 높게 지각하고 있다고 하였고, 가족 적응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는 학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고 한 연구(김수아, 2003)가 있는 반면, 김효원(2004)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어머니와 청소년자녀가 지각하는 의사소통유형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박은주·김경신(1995)의 연구에서 가족응집성과 종교는 관련이 없으나, 가족 적응성과는 종교가 있는 어머니의 경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또는 가정의 생활수준에 따른 가족응집성의 차이를 본 이상길(2004)의 연구에서는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을 높게 지각하고 있으나, 박은주·김경신(1995)의 연구에서는 월 소득과 가족 적응성은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의 차이는 어머니가 취업한 경우보다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의 고교생 집단이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을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상길, 2004). 반면 박은주·김경신(1995)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직업은 가족적응성과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었다.

이상길(2004)의 고교생의 가정배경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대한 연구에서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을 높게 지각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들에서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적응성은 결과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거나, 결과를 달리하는 연구들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홍성애(1988)는 응집성 및 적응성이 모두 높은 가족의 청소년들이 응집성 및 적응성이 모두 낮은 가족의 청소년들보다 자아정체감이 더 높으며, 정상가족일수록,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격리경험이 없었던 청소년들이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으나, 가족구조와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전귀연(1993)은 가족응집성 수준에서 연결된 가족이 부모자녀관계에서 문제의 정도가 가장 적게 나타나고, 가족적응성 수준에서 경직된 가족이 아버지와의 관계의 질에 대한 청소년의 지각에서 문제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균형가족이 극단가족에 비해 가장 건전한 부모자녀관계를 확립한다고 하였다.

김순옥(1990)은 고등학교 자녀와 부모의 응집성은 가족구조 변인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즉 부-자 응집성은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 높고, 모-자 응집성은 형제자매가 있고 출생순위가 첫째일 때 높고, 부-녀 응집성은 출생순위가 첫째이고, 모와의 연령차가 적을수록 높고, 모-녀의 응집성은

양친보다 편친부모이고 모와의 연령차가 적을수록 높다고 하였다. 또 이것은 자녀의 의사소통 솔직성 변인으로 통제하였을 때 상당한 정도로 달라진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에 대한 문화적 기대가 다르거나 상이한 가치관을 소유한 가족은 그 기대가 지지해 주는 체계적 특성을 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러한 특성이 가족체계를 기능적으로 유지해 나가게 하는데 효과적이다(한상분, 1992).

또한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에 관한 연구를 변인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모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연구로서, 김진희(1989)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은 높다고 하였다. 옥선화 등(1991)은 가족응집성이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즉 어머니의 학력이 대졸 이상보다 대학 중퇴 이하인 경우일 때 가족응집성이 낮다고 하였다. 이금(1993)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 김진희(1989)는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자녀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은 높다고 하였고, 이금(1993)은 부의 직업이 행정·관리직에 종사할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 생활수준에 따라서는 이금(1993)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다음은 자녀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연구로서, 이금(1993)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리고 김진희(1989)는 연령이 적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하였다. 또 김진희(1989)는 형제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은 높다고 하였다.

이상의 결과, 일반가정만으로 대상으로 한 경우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가족이 더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사회 인구학적 변인들 중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한 연구들이 있었다.

나. 학교생활적응

가족요인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 가족구조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 부모 모두 함께 사는 청소년들이 한 부모 가족의 청소년들보다 적응을 더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강선, 1999; 최지은, 2002). 이외 가족의 구조적인 모습보다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구자은, 2000; 정유진, 2000; 최지은 2002),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박현선, 1998).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교사와의 관계의 영향을 살펴보면, 구자은(2000)은 교사, 특히 담임교사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하였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호선(2000)의 연구에서도 교사와의 관계가 아동의 수업적응, 즉 학교생활적응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고, 이경자(2006)도 교사의 지지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3)은 학생이 교사와 가까울수록, 공부나 학교활동에 열심히 참여할수록 비행성향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김연주(1996)는 가정환경, 학교적응,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인 사정이 상층에 속하는 학생들이 학교적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학교적응에 큰 영향을 주고, 학교에 적응하는데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과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별에 따른 학교생활적응의 차이에 관한 연구에서는 전현주(2006)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하위영역인 교우관계는 여학생이 높게 나타나고 교사관계, 학교수업, 학교규칙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상신(2001)의 연구에서는 학교적응은 남녀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으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민수(2003)의 학교생활요인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사에서 남학생은 학교환경적응, 규칙준수, 학교생활적응이 영향을 끼치며, 여학생은 규칙준수, 학교생활적응이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현미(2005)는 담임교사와의 관계, 교우관계, 학습관계, 규칙준수 관계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다고 하였다.

위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가정환경과 사회적지지에서 영향을 받으며 교우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와도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남녀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성별, 사는 지역, 그리고 학교유형, 학년, 성적, 가정형편, 함께 살고 있는 가족, 형제수, 부모의 학력, 부모의 직업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되고 있다.

조사대상자는 전체 695명으로, 성별은 여자가 54.7%(380명), 남자가 45.3%(315명)로 여학생이 조금 더 많았다. 지역은 서귀포시가 53.8%(374명), 제주시가 46.2%(321명)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은 남학교 18.3%(127명), 여학교 16.7%(116명), 남녀공학 65.0%(452명)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1학년 34.5%(241명), 2학년은 24.2%(168명), 3학년은 41.2(286명)으로 3학년 비율이 높았다. 성적은 하 21.4%(149명), 중 52.2%(363명), 상 26.3%(183명)이다. 가정형편(경제생활수준)은 하 8.8%(61명), 중 76%(528명), 상 15.3%(106명)로 중간수준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동거가족을 살펴보면, 부모+형제자매 68.9%(479명), 기타가 31.1%(216명)으로 나타났다. 남자 형제수는 없음 43.5%(301명), 1명 48.7%(337명), 2명이상은 7.8%(54명)이며, 여자 형제수는 없음 32.2%(223명), 1명 47.5%(329명), 2명이상은 20.25%(140명)로 나타났다.

부모의 최종학력을 살펴보면 부 최종학력은 대졸 52.8%(328명), 고졸 31.2%(194명), 대학원졸이상 9.3%(58명), 중졸이하 6.6%(41명) 순 이었다. 모 최종학력은 대졸 43.6%(267명), 고졸 40.5%(248명), 대학원졸이상 8.2%(50명), 중졸이하가 7.7%(47명) 순 이었다. 부의 직업으로는 관리사무직 24.5%(167명), 자영업 22.0%(150명), 기타 19.2%(131명), 생산노무직 11.6%(79명), 판매서비스직 11.4%(78명), 전문직 11.3%(126명) 순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으로는 주부 28.8%로 가장 많았고, 판매서비스직 20.1%, 기타 15.3%, 관리사무직 11.95%, 전문직 10.5%, 자영업 8.9%, 생산노무직 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빈도(%)

| 변수 | 구분 | 빈도 | % | 변수 | 구분 | 빈도 | % |
|------------------|-----------|-----|--------|------|--------|-------|------|
| 성별 | 남 | 315 | 45.3 | 남자형제 | 없음 | 301 | 43.5 |
| | 여 | 380 | 54.7 | | 1명 | 337 | 48.7 |
| | 계 | 695 | 100.0 | | 2명이상 | 54 | 7.8 |
| | | | 계 | | 692 | 100.0 | |
| 사는지역 | 제주시 | 321 | 46.2 | 여자형제 | 없음 | 223 | 32.2 |
| | 서귀포시 | 374 | 53.8 | | 1명 | 329 | 47.5 |
| | 계 | 695 | 100.0 | | 2명이상 | 140 | 20.2 |
| | | | 계 | | 692 | 100.0 | |
| 학교유형 | 남학교 | 127 | 18.3 | 부학력 | 중졸이하 | 41 | 6.6 |
| | 여학교 | 116 | 16.7 | | 고졸 | 194 | 31.2 |
| | 남녀공학 | 452 | 65.0 | | 대졸 | 328 | 52.8 |
| | 계 | 695 | 100.0 | | 대학원졸이상 | 58 | 9.3 |
| 학년 | 1학년 | 241 | 34.7 | 계 | 621 | 100.0 | |
| | 2학년 | 168 | 24.2 | 모학력 | 중졸이하 | 47 | 7.7 |
| | 3학년 | 286 | 41.2 | | 고졸 | 248 | 40.5 |
| | 계 | 695 | 100.0 | | 대졸 | 267 | 43.6 |
| | | | 대학원졸이상 | | 50 | 8.2 | |
| 성적 | 하 | 149 | 21.4 | 계 | 612 | 100.0 | |
| | 중 | 363 | 52.2 | 부직업 | 전문직 | 77 | 11.3 |
| | 상 | 183 | 26.3 | | 관리·사무직 | 167 | 24.5 |
| | 계 | 695 | 100.0 | | 판매서비스직 | 78 | 11.4 |
| | | | 생산노무직 | | 79 | 11.6 | |
| 가정형편 (경제생활수준) | 하 | 61 | 21.4 | 자영업 | 150 | 22.0 | |
| | 중 | 528 | 52.2 | 기타 | 131 | 19.2 | |
| | 상 | 106 | 26.3 | 계 | 682 | 100.0 | |
| | 계 | 695 | 100.0 | 모직업 | 전문직 | 72 | 10.5 |
| 동거가족 | 부모 | 62 | 8.9 | | 관리·사무직 | 82 | 11.9 |
| | 부모+형제 | 479 | 68.9 | | 판매서비스직 | 138 | 20.1 |
| | 조부모+부모+형제 | 55 | 7.9 | | 생산노무직 | 31 | 4.5 |
| | 기타 | 99 | 14.2 | | 자영업 | 61 | 8.9 |
| | 계 | 695 | 100.0 | | 주부 | 198 | 28.8 |
| | | | 기타 | 105 | 15.3 | | |
| | 계 | 695 | 100.0 | 계 | 687 | 100.0 | |

- 1) 결측치로 인해 빈도수에 차이가 있음
- 2) 동거가족 : 기타(부+형제자매, 모+형제자매, 조부모+형제자매, 형제자매, 기타)

2. 연구 절차

예비조사는 2010년 7월 1일부터 2010년 7월 9일 까지 실시하였으며, 본 조사에 앞서 문항에 대한 이해와 조사대상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50명을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를 검토, 분석하여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7월 19일부터 8월 6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다. 제주시와 서귀포 지역으로 분류를 하여 조사를 하였고, 남학교, 여학교,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중학생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모집단은 중학교에 근무하는 지인들을 통해서 대상자를 표집하였다.

설문지는 총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설문지 725부 중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을 누락하였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30부를 제외한 총 695부를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 측정도구

1) 가족응집성 · 적응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Olson 등(1985)이 개발한 가족적응성-응집성 평가척도(FACE III: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를, 한상분(1992)이 번역,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만 12세 이상이면 누구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점수 범위는 최저 12점부터 최고 60점까지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응집성 .861, 적응성 .798로 나타났다.

각 하위영역별 문항 구성과 신뢰도는 【표 4】와 같다.

【표 4】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영역 | 문항번호 | 문항수 | 신뢰도 |
|-------|---------------------|-----|------|
| 가족응집성 | 1, 2, 3, 4, 5, 6 | 6 | .861 |
| 가족적응성 | 7, 8, 9, 10, 11, 12 | 6 | .798 |
| 전 체 | | 12 | .898 |

2) 학교생활적응

본 연구에서는 학교생활적응의 측정을 위해서 김용래(1993)의 ‘학교적응 척도’와 김호권(1970)의 중학생용 표준화검사 ‘나의 학교’에서 학교에 대한 태도 문항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교사관계, 수업태도, 교우관계, 학교규칙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하였으며, 총 36문항이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각 하위영역별 전체 점수의 범위의 최저 9점부터 최고 45점까지가 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전체 신뢰도 Cronbach’s α 은 .932 이었다.

【표 5】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구성 및 신뢰도

| 영역 | 문항번호 | 문항수 | 신뢰도 |
|------|---------------------------------------|-----|------|
| 교사관계 | 1, 2, 3, 4, 5, 6, 7, 8, 9 | 9 | .828 |
| 수업태도 | 10, 11, 12, 13, 14, 15, 16, 17, 18 | 9 | .888 |
| 학교규칙 | 19, 20, 21, 22, 23, 24, 25, 26, 27 | 9 | .862 |
| 교우관계 | 28, 29, 30, 31, 32, 33, 34, 35, 36 | 9 | .759 |
| 전 체 | | 36 | .932 |

주) 역 문항: 3, 28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적 분석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통계 분석하였다.

첫째, 척도의 신뢰도 분석을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셋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t-test, ANOVA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넷째,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따라 학교생활적응 정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학교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영향력을 살펴보고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의 현황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을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가족응집성 수준을 보면 남학생 평균 3.54, 여학생 평균 3.50으로 남학생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적응성 수준을 보면 남학생 평균 3.23, 여학생 평균 3.27로 여학생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 응집성 평균 3.51, 가족 적응성 평균 3.25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3.38로 중간이상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복합모델로 설명하면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중간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의 가족은 기능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위영역별로 살펴본 결과, 가족응집성은 “우리는 우리가족 끼리 더 친하게 지낸다.”가 평균 3.7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우리 가족은 공동 활동을 할 때 빠짐없이 모든 가족이 참여한다.”로 답한 경우가 3.19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가족적응성은 “우리 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가 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가 2.92로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가족응집성과 적응성 영역별 전반적인 경향

(N=695)

| 구분 | 문항번호 | 문항내용 | 남 | | 여 | | 전체 | |
|-------|------|------------------------------------|------|-------|------|-------|------|-------|
| | | | M | SD | M | SD | M | SD |
| 가족응집성 | 1 | 우리가족은 우리가족끼리 더 친하게 지낸다. | 3.82 | 1.025 | 3.71 | 1.020 | 3.76 | 1.023 |
| | 2 | 우리가족은 자유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 3.47 | 1.065 | 3.46 | .994 | 3.46 | 1.026 |
| | 3 |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인정해 준다. | 3.75 | .942 | 3.64 | .974 | 3.69 | .960 |
| | 4 |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가족원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3.70 | .988 | 3.60 | 1.023 | 3.64 | 1.008 |
| | 5 | 우리가족은 공동 활동을 할 때 빠짐없이 모든 가족이 참여한다. | 3.18 | 1.061 | 3.19 | 1.035 | 3.19 | 1.046 |
| | 6 |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 3.33 | .996 | 3.41 | 1.001 | 3.37 | .999 |
| 계 | | | 3.54 | .779 | 3.50 | .774 | 3.51 | .776 |
| 가족적응성 | 7 | 식구 중 누구라도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3.41 | 1.086 | 3.64 | 1.032 | 3.53 | 1.062 |
| | 8 | 우리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 3.54 | 1.056 | 3.55 | 1.058 | 3.54 | 1.056 |
| | 9 | 우리 집은 상황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도 있다. | 3.28 | 1.012 | 3.34 | 1.003 | 3.32 | 1.007 |
| | 10 |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 2.97 | 1.197 | 2.94 | 1.126 | 2.95 | 1.158 |
| | 11 |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 | 2.93 | 1.192 | 2.90 | 1.258 | 2.92 | 1.228 |
| | 12 | 가족원 각자 하는 일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다. | 3.29 | 1.106 | 3.28 | 1.047 | 3.28 | 1.032 |
| 계 | | | 3.23 | .793 | 3.27 | .753 | 3.25 | .771 |
| 총 계 | | | 3.38 | .737 | 3.38 | .712 | 3.38 | .723 |

2. 학교생활적응의 현황

본 연구 대상자인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표 7】을 통해 볼 수 있다. 하위영역별 전반적인 상황은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7】 연구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 수준

(N=695)

| 변수 | 남(315) | | 여(380) | | 전체(695) | |
|---------------|-------------|-------------|-------------|-------------|-------------|-------------|
| | M | SD | M | SD | M | SD |
| 교사관계 | 2.94 | .698 | 2.90 | .663 | 2.94 | .698 |
| 수업태도 | 2.93 | .791 | 2.91 | .702 | 2.93 | .791 |
| 학교규칙 | 3.25 | .723 | 3.24 | .658 | 3.25 | .723 |
| 교우관계 | 3.27 | .578 | 3.30 | .494 | 3.27 | .578 |
| 학교생활적응 | 3.10 | .575 | 3.09 | .478 | 3.10 | .575 |

【표 7】에서 보면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 남학생 평균 3.10, 여학생 평균 3.09 수준이며 전체 평균 3.10 으로 보통 이상으로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학생은 학교규칙(3.25), 교우관계(3.27), 교사관계(2.94), 수업태도(2.93) 순으로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여학생은 교우관계(3.30), 학교규칙(3.24), 수업태도(2.91), 교사관계(2.90) 순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는 신체, 심리, 정서, 사회적으로 급속한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성장의 속도나 개인적인 환경 등의 특성도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남학생과 여학생이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수준이 약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된다.

3. 변수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변수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으로 Duncan's-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8】, 【표 9】와 같다.

【표 8】 변수에 따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1)

(N=695)

| 변수 | | 가족응집성 | | | | 가족적응성 | | | | 전체 | | | | | | |
|----------|-------|-------|------|-----------|-----|-------|------|-----------|-----|------|------|-----------|-----|------|------|----|
| | | M | SD | F(t) | DMR | M | SD | F(t) | DMR | M | SD | F(t) | DMR | | | |
| 성별 | 남 | 3.54 | .779 | .677 | | 3.23 | .793 | -.680 | | 3.38 | .737 | .001 | | | | |
| | 여 | 3.50 | .774 | | | 3.27 | .753 | | | 3.38 | .712 | | | | | |
| 사는 지역 | 제주시 | 3.50 | .860 | -5.93 | | 3.25 | .803 | -.042 | | 3.37 | .758 | -.341 | | | | |
| | 서귀포시 | 3.53 | .750 | | | 3.25 | .743 | | | 3.39 | .692 | | | | | |
| 학교 유형 | 남학교 | 3.49 | .807 | 3.089* | ab | 3.22 | .768 | 1.937 | | 3.35 | .739 | 2.828 | ab | | | |
| | 여학교 | 3.36 | .787 | | | a | 3.14 | | | .792 | a | | | 3.25 | .729 | a |
| | 남녀공학 | 3.56 | .760 | | | b | 3.29 | | | .765 | b | | | 3.43 | .714 | b |
| 학년 | 1학년 | 3.55 | .765 | .384 | | 3.29 | .709 | 1.860 | | 3.42 | .686 | .762 | | | | |
| | 2학년 | 3.49 | .835 | | | 3.32 | .859 | | | 3.40 | .808 | | | | | |
| | 3학년 | 3.50 | .750 | | | 3.19 | .764 | | | 3.34 | .701 | | | | | |
| 성적 | 하 | 3.26 | .732 | 10.666*** | a | 3.04 | .809 | 8.247*** | a | 3.15 | .714 | 10.729*** | a | | | |
| | 중 | 3.57 | .755 | | | b | 3.28 | | | .757 | b | | | 3.42 | .710 | b |
| | 상 | 3.62 | .810 | | | b | 3.37 | | | .737 | b | | | 3.49 | .719 | b |
| 가정 형편 | 하 | 3.31 | .887 | 11.249*** | a | 3.13 | .869 | 11.226*** | a | 3.22 | .815 | 12.789*** | a | | | |
| | 중 | 3.48 | .716 | | | a | 3.20 | | | .716 | a | | | 3.34 | .667 | b |
| | 상 | 3.82 | .910 | | | b | 3.57 | | | .910 | b | | | 3.69 | .847 | b |
| 동거 가족 유형 | 1 | 3.69 | .862 | 4.618** | c | 3.46 | .825 | 3.587* | b | 3.57 | .802 | 4.585** | c | | | |
| | 2 | 3.55 | .749 | | | bc | 3.27 | | | .749 | ab | | | 3.41 | .696 | ab |
| | 3 | 3.43 | .899 | | | ab | 3.25 | | | .813 | ab | | | 3.34 | .815 | bc |
| | 4 | 3.28 | .730 | | | a | 3.06 | | | .789 | a | | | 3.17 | .709 | a |
| 남자 형제 수 | 없음 | 3.53 | .762 | .207 | | 3.22 | .763 | .628 | | 3.38 | .715 | .165 | | | | |
| | 1명 | 3.50 | .786 | | | 3.27 | .772 | | | 3.38 | .724 | | | | | |
| | 2명 이상 | 3.54 | .815 | | | 3.34 | .830 | | | 3.44 | .782 | | | | | |
| 여자 형제 수 | 없음 | 3.53 | .768 | 5.254** | b | 3.21 | .843 | 7.415*** | ab | 3.37 | .760 | 6.948*** | b | | | |
| | 1명 | 3.58 | .787 | | | b | 3.36 | | | .747 | b | | | 3.47 | .714 | b |
| | 2명 이상 | 3.33 | .743 | | | a | 3.07 | | | .670 | a | | | 3.20 | .656 | a |

1) *p< .05, ***p< .001

2)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동거가족유형: 1(부모), 2(부모+형제), 3(조부모+부모+형제자매), 4(기타:부+형제자매, 모+형제자매, 조부모+형제자매, 형제자매, 기타)

【표 9】 변수에 따른 가족적응성, 가족응집성(2)

(N=695)

| 변수 | | 가족응집성 | | | | 가족적응성 | | | | 전체 | | | |
|-------|--------|-------|------|----------|------|-------|------|----------|------|------|------|----------|-----|
| | | M | SD | F(t) | DMR | M | SD | F(t) | DMR | M | SD | F(t) | DMR |
| 가족 형태 | 중졸이하 | 3.31 | .873 | | a | 3.05 | .812 | | a | 3.18 | .791 | | a |
| | 고졸 | 3.45 | .798 | 2.92* | ab | 3.18 | .811 | 2.707* | ab | 3.31 | .753 | 3.191* | ab |
| | 대졸 | 3.59 | .725 | | b | 3.33 | .729 | | b | 3.46 | .680 | | b |
| | 대학원졸이상 | 3.63 | .883 | b | 3.33 | .883 | b | 3.48 | .783 | b | | | |
| 가족 형태 | 중졸이하 | 3.23 | .788 | | a | 2.92 | .745 | | a | 3.07 | .719 | | a |
| | 고졸 | 3.50 | .693 | 3.855** | b | 3.18 | .731 | 6.245*** | b | 3.34 | .650 | 5.558*** | b |
| | 대졸 | 3.58 | .813 | | b | 3.36 | .773 | | bc | 3.47 | .752 | | bc |
| | 대학원졸이상 | 3.73 | .979 | b | 3.44 | .945 | c | 3.58 | .904 | c | | | |
| 가족 직업 | 전문직 | 3.65 | .827 | 2.524* | bc | 3.40 | .822 | 1.673 | | 3.53 | .767 | 2.276* | bc |
| | 관리·사무직 | 3.55 | .688 | | abc | 3.23 | .738 | | | 3.39 | .649 | | abc |
| | 판매서비스직 | 3.47 | .863 | | ab | 3.27 | .850 | | | 3.37 | .825 | | abc |
| | 생산노무직 | 3.72 | .751 | | c | 3.40 | .762 | | | 3.56 | .721 | | c |
| | 자영업 | 3.45 | .729 | | ab | 3.19 | .695 | | | 3.32 | .663 | | ab |
| | 기타 | 3.40 | .849 | | a | 3.18 | .819 | | | 3.29 | .782 | | a |
| 가족 직업 | 전문직 | 3.79 | .744 | 4.828*** | c | 3.40 | .781 | 1.623 | | 3.59 | .720 | 3.110** | b |
| | 관리·사무직 | 3.30 | .915 | | ab | 3.17 | .858 | | | 3.23 | .833 | | a |
| | 판매서비스직 | 3.56 | .660 | | bc | 3.21 | .712 | | | 3.39 | .632 | | ab |
| | 생산노무직 | 3.68 | .896 | | c | 3.18 | .941 | | | 3.43 | .842 | | ab |
| | 자영업 | 3.62 | .645 | | c | 3.29 | .731 | | | 3.46 | .640 | | ab |
| | 주부 | 3.56 | .761 | | a | 3.34 | .767 | | | 3.45 | .714 | | ab |
| | 기타 | 3.28 | .802 | | bc | 3.13 | .752 | | | 3.20 | .739 | | a |

1) *p< .05, **p< .0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가족응집성 수준을 보면, 학교유형, 성적, 가정형편, 동거가족, 여자 형제수, 부학력, 모학력, 부직업, 모직업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유형이 남녀공학인 경우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학교 집단과 남녀공학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의 경우 중상 집단일수록 가족응집성이 높게 나타났고, 가정 형편에 따라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하 집단과 중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동거가족이 부모 집단인 경우 가족응집성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모 집단과 기타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 형제 수는 1명인 집단과 여자형제가 없거나

2명 이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가족 응집력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의 경우 중졸이하 집단과 대졸 이상 집단간에, 모의 경우 중졸 이하 집단과 고졸 이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의 직업이 생산 노무직인 경우, 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가장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인 경우, 제주시 지역인 경우, 1학년인 경우, 남자 형제가 2명 이상인 경우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가족적응성을 살펴보면, 성적, 가정형편, 동거 가족, 여자 형제 수, 부 직업, 모 직업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이 상 일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 집단과 중상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가정형편이 상일수록 가족적응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하중 집단과 상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동거가족의 경우 부모와 함께 사는 집단인 경우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집단과 기타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형제가 1명인 경우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었고, 1명 집단과 두명 이상 집단간에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어머니의 학력이 대학원 졸업 이상인 경우 가족적응성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학생인 경우,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경우, 2학년인 경우, 남자형제수가 2명 이상인 경우, 부가 전문직 또는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가족적응성 수준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적, 가정형편, 동거가족, 여자 형제수, 부학력, 모학력, 무직업, 모직업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성적이 상인 경우, 가정형편이 상인 경우, 동거가족이 부모인 경우, 여자형제수가 1명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부는 생산 노무직, 모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본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수준이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변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ANOVA 분석을 실시하고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 , 【표 11】 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하위영역별 학교생활적응을 보면, 성별에 따라서 수업태도, 학교규칙, 교우관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업태도와 학교규칙은 남학생인 경우, 교우관계는 여학생인 경우에 적응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유형에 따라서는 교사와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데, 남학교 학생인 경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학교 집단과 남학교 이거나 남녀공학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또한 1학년인 경우 교사관계와 수업태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교사관계는 1학년 집단과 2학년 집단간 차이를 보이며, 수업태도는 1학년 집단과 2, 3학년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는 상 집단이 평균 3.01 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중집단이 3.00, 하인 집단이 2.71 이었으며 집단별로 보면 중상 집단과 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수업태도를 보면, 상 집단의 평균이 3.26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 2.89, 하 2.61 이었고, 상, 중, 하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교규칙의 경우 상 집단의 평균이 3.48 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 3.23, 하 3.00 으로 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적에 따른 교우관계를 보면, 상 평균 3.39로 가장 높았으며, 중 평균 3.31, 하 평균 3.04 로 나타났으며 하 집단과 중상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형편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교사관계는 F값이 7.466, 수업태도는 F값이 13.782, 학교규칙은 F값이 26.105, 교우관계는 F값이 26.416으로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가정형편이 상인 경우 학교생활 적응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교사관계는 가정형편이 하 집단과 중상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수업태도와, 학교규칙은 세집단간 차이가 나타났으며, 교우관계인 경우 가정형편이 중하 집단과 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변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1)

(N=695)

| 변수 | | 학교생활적응 | | | | | | | | | | | |
|---------|-------|--------|----------|-----|------|-----------|-----|------|-----------|-----|------|-----------|-----|
| | | 교사관계 | | | 수업태도 | | | 학교규칙 | | | 교우관계 | | |
| | | M | F(t) | DMR | M | F(t) | DMR | M | F(t) | DMR | M | F(t) | DMR |
| 성별 | 남 | 2.99 | | | 2.95 | | | 3.25 | | | 3.24 | | |
| | 여 | 2.90 | 1.619 | | 2.91 | .678*** | | 3.24 | .038** | | 3.30 | -1.403*** | |
| 사는 지역 | 제주시 | 2.90 | | | 2.87 | | | 3.23 | | | 3.28 | | |
| | 서귀포시 | 2.97 | -1.399 | | 2.98 | -1.852 | | 3.26 | .236 | | 3.27 | -1.125 | |
| 학교 유형 | 남학교 | 2.99 | | b | 2.92 | | | 3.27 | | | 3.25 | | |
| | 여학교 | 2.79 | 3.454* | a | 2.79 | 2.392 | | 3.15 | .095 | | 3.27 | 2.060 | |
| | 남녀공학 | 2.96 | | b | 2.97 | | | 3.26 | | | 3.28 | | |
| 학년 | 1학년 | 3.02 | | b | 3.07 | | b | 3.26 | | | 3.27 | | |
| | 2학년 | 2.84 | 3.274* | a | 2.87 | 5.815** | a | 3.26 | .114 | | 3.30 | .324 | |
| | 3학년 | 2.93 | | ab | 2.85 | | a | 3.23 | | | 3.26 | | |
| 성적 | 하 | 2.71 | | a | 2.61 | | a | 3.00 | | a | 3.04 | | a |
| | 중 | 3.00 | 1.856*** | b | 2.89 | 31.226*** | b | 3.23 | 19.187*** | b | 3.31 | 17.956*** | b |
| | 상 | 3.01 | | b | 3.26 | | c | 3.48 | | c | 3.39 | | b |
| 가정 형편 | 하 | 2.69 | | a | 2.62 | | a | 2.91 | | a | 3.11 | | a |
| | 중 | 2.93 | 7.466*** | b | 2.90 | 13.782*** | b | 3.20 | 26.105*** | b | 3.22 | 26.416*** | a |
| | 상 | 3.12 | | b | 3.24 | | c | 3.66 | | c | 3.63 | | b |
| 동거 가족 | 1 | 3.01 | | | 2.99 | | b | 3.31 | | b | 3.29 | | ab |
| | 2 | 2.95 | | | 2.95 | | b | 3.26 | | b | 3.29 | | ab |
| | 3 | 3.00 | 1.122 | | 3.15 | 4.740** | b | 3.40 | 4.019** | b | 3.35 | 2.399 | b |
| | 4 | 2.83 | | | 2.69 | | a | 3.03 | | a | 3.13 | | a |
| 남자 형제 수 | 없음 | 2.92 | | | 2.92 | | | 3.26 | | | 3.27 | | |
| | 1명 | 2.95 | .300 | | 2.95 | .343 | | 3.22 | .277 | | 3.28 | .016 | |
| | 2명 이상 | 2.98 | | | 2.85 | | | 3.28 | | | 3.26 | | |
| 여자 형제 수 | 없음 | 3.01 | | b | 2.98 | | b | 3.26 | | b | 3.27 | | |
| | 1명 | 2.98 | 8.552*** | b | 3.00 | 9.487*** | b | 3.34 | 11.680*** | b | 3.30 | 1.488 | |
| | 2명 이상 | 2.73 | | a | 2.67 | | a | 2.99 | | a | 3.20 | | |

1) *p< .05, ***p< .001

2)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1: 부모, 2:부모+형제, 3:조부모+부모+형제자매, 4:기타(부+형제자매, 모+형제자매, 조부모+형제자매, 형제자매, 기타)

동거가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수업태도(p<.01), 학교규칙(p<.01)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3(조부모+부모+형제자매)집단일 때 수업태도 평균 3.15, 학교규칙 평균 3.40 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수업태도와 학교규칙의 경우 4 집단(부+형제자매, 모+형제자매, 조부모

+형제자매, 형제자매, 기타)과 1(부모), 2(부모+형제), 3(조부모+부모+형제자매)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여자 형제 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교사관계($p<.001$), 수업태도($p<.001$), 학교규칙($p<.001$)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즉 여자형제수가 없는 경우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하는 수준이 가장 높았고, 여자 형제가 한명인 경우 수업태도와 학교규칙에 적응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모두 여자형제가 없거나 1명 집단과 2명 이상인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변수에 따른 학교생활적응(2)

(N=695)

| 변수 | | 학교생활적응 | | | | | | | | | | | | | | |
|-------------|--------|--------|-------|------|----------|----------|------|----------|----------|------|------|---------|-------|------|------|---|
| | | 교사관계 | | | 수업태도 | | | 학교규칙 | | | 교우관계 | | | | | |
| | | M | F(t) | DMR | M | F(t) | DMR | M | F(t) | DMR | M | F(t) | DMR | | | |
| 부 학 력 | 중졸이하 | 3.00 | | | 2.78 | | a | 3.08 | | a | 3.18 | | a | | | |
| | 고졸 | 2.89 | .592 | | 2.86 | | a | 3.18 | 6.846*** | | a | 3.24 | 1.958 | ab | | |
| | 대졸 | 2.96 | | 2.98 | 4.648** | a | 3.28 | a | | 3.33 | ab | | | | | |
| | 대학원졸이상 | 2.96 | | 3.25 | b | 3.63 | b | 3.38 | | b | | | | | | |
| 모 학 력 | 중졸이하 | 2.98 | | | | 2.76 | | a | | 3.17 | | a | | 3.19 | | |
| | 고졸 | 2.94 | .159 | | 2.88 | | a | 3.25 | 1.674 | | ab | 3.30 | .769 | | | |
| | 대졸 | 2.91 | | 2.99 | 2.668* | ab | 3.24 | ab | | 3.32 | | | | | | |
| | 대학원졸이상 | 2.91 | | 3.14 | b | 3.46 | b | 3.34 | | | | | | | | |
| 부 직 업 | 전문직 | 3.02 | | | | 3.24 | | c | | 3.44 | | b | | 3.34 | | |
| | 관리·사무직 | 2.92 | 1.235 | | 2.98 | | b | 3.22 | | a | 3.32 | | | | | |
| | 판매서비스직 | 2.99 | | 2.94 | 4.759*** | ab | 3.28 | 4.138*** | a | 3.21 | .875 | | | | | |
| | 생산노무직 | 3.06 | | 3.00 | | b | 3.47 | | b | 3.31 | | | | | | |
| | 자영업 | 2.92 | | 2.88 | | ab | 3.27 | | ab | 3.24 | | | | | | |
| | 기타 | 2.85 | | 2.72 | | a | 3.08 | | a | 3.24 | | | | | | |
| 모 직 업 | 전문직 | 3.13 | | | | b | 3.25 | | | c | | 3.55 | | c | 3.49 | |
| | 관리·사무직 | 2.82 | | a | | 2.88 | | | ab | 3.27 | | | ab | 3.23 | | a |
| | 판매서비스직 | 2.94 | | ab | 2.95 | | ab | 3.30 | | ab | 3.23 | | a | | | |
| | 생산노무직 | 2.94 | 1.601 | ab | 3.13 | 3.919*** | bc | 3.33 | 3.895*** | bc | 3.32 | 3.622** | ab | | | |
| | 자영업 | 3.05 | | 2.91 | ab | | 3.25 | ab | | 3.24 | | | | | | |
| | 주부 | 2.92 | | 2.94 | a | | 3.22 | a | | 3.34 | | | | | | |
| | 기타 | 2.91 | | 2.70 | ab | | 3.04 | ab | | 3.13 | | | | | | |

1) * $p<.05$, *** $p<.001$

2)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부 학력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부의 학력에 따라 수업태도 ($p<.01$), 학교규칙($p<.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원 졸업 이상일수록 수업태도와 학교규칙이 가장 높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수업태도와 학교규칙 모두 중졸 집단과 대학원 졸업 이상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 학력에 따라서 수업태도($p<.05$)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모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일 때 가족적응성 수준이 가장 높았고, 고졸이하집단과 대학원졸 이상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다.

부 직업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부의 직업에 따라 수업태도 ($p<.001$), 학교규칙($p<.0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수업태도가 가장 높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의 직업이 생산-노무직인 경우 학교규칙을 가장 높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보면 수업태도는 전문직과 직업이 없는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고, 학교규칙은 전문직, 생산노무직 집단과 기타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 직업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살펴보면 모의 직업에 따라 수업태도 ($p<.001$), 학교규칙($p<.001$), 교우관계($p<.01$)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 직업이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수업태도가 가장 높은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가 학생인 경우 학교규칙과 교우관계에 가장 높게 적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태도의 경우 모의 직업이 전문직 집단과 주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고, 학교규칙도 모의 직업이 전문직 집단과 주부 집단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그리고 교우관계는 모 직업이 전문직 집단과 자영업, 주부, 관리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5.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연구대상자의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표 12】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에 따른 학교생활적응

(N=695)

| 변수 | | 학교 생활 적응 | | | | | | | | | | | |
|-------|----------|-----------|-------|-----|-----------|------|-----|-----------|------|-----|-----------|------|-----|
| | | 교사관계 | | | 수업태도 | | | 학교규칙 | | | 교우관계 | | |
| | | M | SD | DMR | M | SD | DMR | M | SD | DMR | M | SD | DMR |
| 가족응집성 | 하(6-13) | 2.28 | .0730 | a | 2.27 | .653 | a | 2.72 | .834 | a | 3.03 | .730 | a |
| | 중(14-22) | 2.82 | .580 | b | 2.80 | .711 | b | 3.13 | .636 | b | 3.15 | .481 | a |
| | 상(23-30) | 3.24 | .755 | c | 3.23 | .828 | c | 3.57 | .758 | c | 3.52 | .625 | b |
| | 전체 | 2.94 | .698 | | 2.93 | .791 | | 3.25 | .723 | | 3.27 | .578 | |
| | F값 | 49.235*** | | | 37.652*** | | | 33.526*** | | | 38.360*** | | |
| 가족적응성 | 하(6-13) | 2.64 | .624 | a | 2.50 | .657 | a | 2.83 | .647 | a | 3.10 | .541 | a |
| | 중(14-22) | 2.87 | .630 | b | 2.88 | .722 | b | 3.18 | .650 | b | 3.18 | .518 | a |
| | 상(23-50) | 3.28 | .795 | c | 3.24 | .918 | c | 3.59 | .818 | c | 3.62 | .621 | b |
| | 전체 | 2.94 | .698 | | 2.93 | .791 | | 3.25 | .723 | | 3.27 | .578 | |
| | F값 | 30.027*** | | | 23.883*** | | | 32.787*** | | | 43.697*** | | |

1) ***p< .001

2)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응집성에 따른 교사관계는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관계의 경우 상 집단에서 평균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업태도는 상 집단이 평균 3.23, 학교규칙의 경우 상 집단이 평균 3.57, 교우관계에서도 상 집단이 평균 3.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수업태도가 좋으며,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교사와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집단별로 보면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의 경우에는 가족응집성 수준이 상 집단, 중 집단, 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반면, 교우관계에서는 가족응집성이 하중 집단과 상 집단 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가족적응성에 따른 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교우관계영역 모두 p<.001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교사관계는 상 집단이 평균 3.2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 집단 평균 2.86, 하 집단 평균 2.59순이었다. 수업태도는 상 집

단의 평균이 3.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 평균 2.89, 하 평균 2.47로 나타났다. 학교규칙은 가족응집성이 상 평균 3.5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 평균 3.20, 하 평균 2.80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도 상 평균 3.5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중 평균 3.20, 하 평균 3.02로 나타났다. 즉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하고, 수업태도가 좋고, 학교규칙을 잘 따르고, 교우관계도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든 영역에서 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6.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과 학교생활 적응의 네 가지 하위요인간의 상관관계를 검증한 결과 다음 【표 13】과 같다.

상관관계 분석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 수준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표 13 】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 변수 | 가족응집성 | 가족적응성 | 교사적응 | 수업적응 | 학교규칙 | 교우관계 |
|-------|---------|---------|---------|---------|---------|------|
| 가족응집성 | 1 | | | | | |
| 가족적응성 | .739*** | 1 | | | | |
| 교사적응 | .953*** | .863*** | 1 | | | |
| 수업적응 | .626*** | .822*** | .654*** | 1 | | |
| 학교규칙 | .570*** | .622*** | .579*** | .693*** | 1 | |
| 교우관계 | .387*** | .440*** | .400*** | .484*** | .538*** | 1 |

1) ***p < .001

7.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제 변수들의 영향력

제 변수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인 변수와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4】와 같다. 즉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 적응(교사관계, 수업태도, 학교규칙, 교우관계) 사이의 다중공선성의 위험을 방지하고,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피어슨 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다중회귀분석 전에 실시한 다중공선성 진단결과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가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기준치인 10을 넘지 않아 다중 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변인이 대상자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에 사용되었다.

연구모델에 포함된 변수는 상관관계 값 및 다중공선성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 하에 선택되었다. 성별이 남자인 경우,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다. 전체적으로 F값을 기준으로 할 때 제 모델들은 유의미하였으며,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0%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이외에 학교생활적응을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을 좀 더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여진다.

교사관계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족응집성으로,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 적응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수업태도 영역에서 보면 성별, 학년, 성적, 남자형제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이 남성인 경우, 학년이 낮을수록, 성적이 좋을수록, 남자형제수가 2명 이상인 경우 수업태도는 좋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학교규칙 영역에서는 성별, 가정형편, 가족적응성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다. 즉 남성인 경우,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학교규칙에 잘 적응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우관계 영역에서는 성별, 모 직업에 의해 유의한 영향을 받았다. 조사대상자의 성별이 남성인 경우, 모의 직업이 주부인 경우 교우관계에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4】 변수들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

| 변수 | 학교생활적응 | | | | | | | | | |
|--------------------|-----------|--------|-----------|---------|-----------|--------|-----------|--------|-----------|--------|
| | 교사관계 | | 수업태도 | | 학교규칙 | | 교우관계 | | 전체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성별 | -.344 | -.025 | -2.876 | -.188* | -2.095 | -.166* | -2.013 | -.180* | -7.328 | -.173* |
| 사는 지역 | 1.156 | .088 | 1.446 | .099 | 1.414 | .117 | .668 | .062 | 4.684 | .116 |
| 학교유형 | -1.226 | -.159 | -1.367 | -.158 | .113 | .016 | -.285 | -.045 | -2.766 | -.116 |
| 학년 | -1.039 | -.138 | -1.884 | -.224** | -.667 | -.096 | .067 | .011 | -3.523 | -.151* |
| 성적 | 1.061 | .115 | 1.864 | .180* | .617 | .072 | .912 | .120 | 4.453 | .155* |
| 가정형편 | .286 | .019 | -.753 | -.046 | 2.695 | .198** | 1.714 | .142 | 3.941 | .086 |
| 남자 형제수 | -2.667 | -.144 | -3.448 | -.166* | -1.046 | -.061 | -.122 | -.008 | -7.283 | -.126 |
| 여자 형제수 | -.907 | -.059 | -.980 | -.057 | .772 | .054 | -.153 | -.012 | -1.268 | -.026 |
| 동거가족 | -.109 | -.120 | .718 | .070 | .585 | .068 | .031 | .004 | .224 | .008 |
| 부 직업 | -.025 | -.007 | .145 | .034 | -.068 | -.019 | -.042 | -.130 | -.35 | -.030 |
| 모 직업 | .353 | .120 | .201 | .061 | .053 | .020 | .492 | .204** | 1.099 | .120 |
| 부 학력 | -.689 | -.076 | .411 | .040 | .536 | .063 | 1.045 | .139 | 1.303 | .046 |
| 모 학력 | .418 | .047 | -.364 | -.037 | .543 | .066 | .097 | .013 | .693 | .025 |
| 가족응집성 | 2.515 | .250** | 1.879 | .166 | 1.058 | .113 | .285 | .034 | 5.737 | .184* |
| 가족적응성 | 1.539 | .152 | 1.624 | .143 | 1.863 | .198* | .826 | .099 | 5.852 | .186* |
| 상수 | 19.228*** | | 19.423*** | | 13.004*** | | 18.062*** | | 69.717*** | |
| F value | 3.323*** | | 4.003*** | | 3.316*** | | 2.376** | | 4.070*** | |
| 수정된 R ² | .163 | | .201 | | .163 | | .103 | | .205 | |

1) 성별(여자=0), 사는 지역(서귀포=0), 학교유형(남여 공학=0), 남자형제수(없음=0), 여자형제수(없음=0), 동거가족(기타=0), 부직업(기타=0), 모직업(기타=0) 은 더미변수임

2) *p < .05, ***p < .001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하위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성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은 분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소년기의 개인적인 특성들과는 무관하게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들의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수준이 대체적으로 중간이상인 청소년들이었으며, 그들은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각 영역별로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다르므로 그러한 변수들의 영향력을 고려하여 학교생활적응에 알맞은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해준다고 하겠다.

V. 요약 및 결론

1.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느 정도 서로 다른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생활적응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고, 둘째,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은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경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셋째,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끝으로,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사는 지역, 학교유형, 학년, 성적, 가정형편,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남자 형제 수, 여자 형제 수, 부의 학력, 모의 학력, 부의 직업, 모의 직업의 13개 변인을 조사하였으며,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은 각각 6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은 교사관계, 수업태도, 교우관계, 학교규칙의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각각 9문항씩 구성하였으며, 총 36문항이 연구에 사용되었다.

연구 대상자는 총 69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의 통계적 분석처리는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과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산출 하였고, 각 변인들 간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t-test, ANOVA분석,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earson 상관계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문제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첫째,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은 평균 3.51, 가족 적응성은 평균 3.25로 나타나 중간이상 수준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합순환 모델에 따르면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가족성원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정서적인 유대감과 동시에 개인적인 자율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지나치게 가족에게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느끼거나 반대로 거리감을 느낀다면 가족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응집성 수준이 적당히 높은 ‘연결된 가족’이며, 또한 적응성 수준이 적당히 높은 ‘융통적 가족’이라고 판단된다. 즉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 모두 중간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대상자들은 가족의 기능이 적당히 기능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우관계, 학교규칙, 교사관계, 수업태도 순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은 학교생활에서 교우와의 관계, 학교규칙준수, 교사와의 관계, 학업수업 순으로 잘 적응한다는 김지은(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연구문제 2.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은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첫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을 살펴보면, 13개의 변인 중에서 학교유형, 성적, 가정형편, 동거가족, 여자 형제 수, 부 학력, 모 학력, 부 직업, 모 직업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녀공학인 경우, 성적이 상인 경우, 가정형편이 상인 경우, 여자형제수가 1명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졸

인 경우, 부 직업이 생산노무직인 경우, 모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가족응집성이 높게 나타났다. 김효원(2004), 정희준(1995)의 연구와 같은 결과이다. 그러나 성별, 사는 지역, 학년, 남자 형제 수에 따라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성인 경우, 제주시 지역인 경우, 학년이 1학년인 경우, 남자 형제가 2명 이상인 경우 가족응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유미(1990), 김효원(2004), 박용성(2003)의 연구에서 아동이 지각한 응집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과 같은 결과이며, 이러한 결과로서 가족 내에서의 응집에 있어 생활양식이나 가치관, 가족관계 등에 있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음을 추측하게 한다(이수미, 1995).

둘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학생의 가족 적응성은 13개의 변인 중 성적, 가정형편, 동거가족, 여자 형제 수, 부 학력, 모 학력 변인에서 유의미한 차이 나타났다. 성적이 상일수록, 가정형편이 상일수록 가족적응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동거가족이 부모인 경우, 여자형제수가 1명 인 경우, 부 학력이 대졸 이상인 경우, 모의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가족적응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사는 지역, 학교유형, 학년, 남자 형제 수, 부모의 직업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을 유의미한 변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교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학교유형, 학년, 성적, 가정형편, 여자형제수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교인 경우, 중학교 1학년인 경우, 성적인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여자형제수가 없는 경우 교사와의 관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성별이 남학생인 경우, 1학년인 경우, 성적이 상인 경우, 가정형편이 상인 경우, 동거가족이 “부모+조부모+형제자매”인 경우, 여자형제수가 1명인 경우, 부모의 학력이 대학원 이상인 경우, 부모의 직업이 전문직인 경우 수업태도가 높은 수준으로 지각하고 있다.

학교규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 성적, 가정형편, 동거가족, 여자 형제수, 부학력, 부모 직업이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교 1

학년인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부모+조부모+형제자매”와 함께 사는 경우, 여자형제가 1명인 경우, 부 학력이 대학원졸 이상인 경우, 부가 생산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 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학교규칙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우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성별, 성적, 가정형편, 모직업이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남학생인 경우, 성적이 좋을수록, 가정형편이 좋을수록, 모가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교우관계 수준이 높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었다.

연구문제 3.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차이가 있는가?

첫째, 가족응집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모든 하위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응집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수업태도가 좋으며,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교사와의 관계도 좋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가족 적응성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모든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에 적응하고, 수업태도가 좋고, 학교규칙을 잘 따르며 교우관계도 좋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연령이 적을수록, 형제수가 많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한 김진희(198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 또한 홍성애(1988), 이상길(2004)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응집성 및 적응성이 모두 높다고 하였고, 이금(1993)은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한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아버지가 전문·관리직에 종사할수록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다고 한 김진희(1989)의 연구와 맥을 같이한다고 사료된다.

연구문제 4.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첫째,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적응 사이에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지를

알아보고자 pearson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모든 변수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학교생활 적응 수준 간에는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광영(1999), 김수아(2003), 이상길(2004), 정현옥(2007)의 연구와 일치하며, 아동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학교 내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홍상임(1994)의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가족 응집성과 적응성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F값을 기준으로 할 때 제 모델들은 전체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약 23% 수준이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변수 이외에 학교생활 적응을 결정하는 다른 변수들을 좀 더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된다.

2.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생이 지각하는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전반적인 경향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이 학교생활적응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 마련의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중학생들이 지각한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 미성숙에서 성숙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시기이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해 비교적 건강하게 인식하고 있다.

둘째, 복합순환모델에 따르면 가족응집성이 적당히 낮은 가족은 분리된 가족이며, 응집성이 적당히 높은 가족은 연결된 가족으로, 이러한 두 가지 가족이 효과적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개인의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연

구에서 청소년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가족응집성은 가족끼리 더 친하게 지낸다 고 생각하고 있고 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인정해주며, 어려울 때 가족원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가족응집성이 적당히 높게 지각하고 있어 복합순환모델과 일치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Circumplex Model에 따르면 가족적응성 수준이 적당한 구조적 가족이나 융통적 가족일 때 가족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이 높게 지각하고 있는 가족 적응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으며, 식구 중 누구라도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지각하고 있다. 이는 조사 대상자들이 권위적인 가족 구조로부터 벗어나 가족 내 권력구조나 역할과 규칙 등에 융통성 있게 변화하기를 바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중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 수준은 중간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중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수준에 있어 서로 독립적 이라기보다는 다른 요인에 영향을 주거나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학교에 가기를 좋아할 것이고, 학교교육 전반에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어 수업태도도 바르게 될 것이다. 수업태도가 바르면 교사의 지지를 받아 교사와의 관계가 원만해질 것이며 결국 교우관계도 좋아져 학교 생활적응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친구에게서 지지를 많이 받은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뒷받침이 된다는 구자은(2000)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또한 또래와의 관계가 원만하고 신뢰감이 깊을수록 청소년들에 학교생활에 더 잘 적응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친구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면 학교생활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가족응집성, 적응성,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인 교사태도, 교우관계, 규칙준수, 수업태도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의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이 높을수록 교사와의 관계가 좋고, 수업태도가 좋으며, 학교규칙을 잘 지키고 교사와의 관계도 좋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선행연구의 정적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연구결과(서영미, 2004; 허주연, 2005; 이상길, 1994)를 대변해 주었으며, 기존 연구 대부분이 응집성이나 적응성 수준에

따른 영향력을 구했던 것과는 차별화 되었다. 이는 가정이 청소년들에게 일차적으로 생활경험, 문화경험, 문화전달·습득 및 인격형성을 하고 그들의 가치관, 동기, 태도 등의 행동경향을 발달시키는 사회적 학습의 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김미숙, 1989), 학교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정적인 측면에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전체적으로 볼 때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하위영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가족의 응집성과 가족의 적응성 수준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분명했다. 이러한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청소년기의 개인적인 특성들과는 무관하게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형성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제주도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기 때문에 이를 우리나라 중학생들의 특성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으므로 각 변인간의 매개효과를 밝힐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가족응집성과 적응성에 대한 척도가 외국에서 개발된 것을 그대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우리 문화적 특성에 맞는 명료화된 척도 개발 및 다양한 문항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본 연구는 설문조사를 통하여 양적연구를 수행하여 인간의 행동 및 심리상의 특징을 점수로 수량화하여 연구되었으므로, 대상자들에게 이러한 특성들이 생기게 된 배경이나 상황 등의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질적 연구도 병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족요인 이외에 학교요인, 사회적 요인, 대인관계 요인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 응집성 및 적응성과 사회 인구학적 변인만을 다루었다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개인내적인 요인, 가족관계, 또래관계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섯째,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 수준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게 지각하고 있으므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

발이 필요하다. 아울러 가정-학교-사회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용태(2000). 가족치료이론. 학지사.
- 김춘경, 이수연, 최용용 공저(2009). 청소년상담. 학지사.
- 신성인, 김순척, 서혜석, 송유미, 이규영, 이미영(2009). 가족 치료 및 상담 치료계획서. 신정.
- 오영희, 송진숙, 송영란, 양승지.(2005). 가족학의 이론과 실제. 21세기사.
- 진영석(1996). 가족치료. 백산출판사.

<국내문헌>

- 김미숙(1989). 우리나라 청소년의 개념수준과 자아정체감과의 상관관계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경(2003). 가족체계유형과 자아분화 및 진로결정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민정(2005). 청소년이 지각한 스트레스와 자아 탄력성이 가정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세레나(2007). 중학생의 학교 부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용래(1993). 학업성적에 대한 기여변인의 영향력 분석.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지은(2005).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지혜(1998). 청소년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지지체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진희(1989). 부모-청소년 자녀간 의사소통과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문은식(2001).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행동에 관련되는 사회 심리적 변인들의

구조적 분석. 충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문은식(2005). 중학생의 정서지능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 교육 연구논총.

박유화(2001). 대학생의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 수준과 대학생활적응도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장환(1996). 공업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요인분석.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지영(1995).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적응성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송미경(2010).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및 자아분화수준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대구카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발달메커니즘. 한국청소년학회 5호 PP. 147-165

안규복(1986). 중학생들의 학교에 대한 태도 분석. 강원

안영복(1984). 적응 및 부적응 행동의 특성과 관계 변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경자(2004). 중학생의 사회적 지지와 학업동기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금(1993). 청소년의 부모에 의사유통 만족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지미(2010). 청소년이 지각한 모-자녀간 의사소통과 자아 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상길(2004). 가정배경 변인에 따른 일반계 고교생이 지각한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의 차이. 대한가정학회지 PP. 435-448

이상진·정옥분(1999).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경험과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한국 가정과 교육학회지 11호. PP. 73-87

이소연(2003). 가족의 응집성과 적응성과 진로의사결정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이호선(2000). 아동의 또래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혜경(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건강성과 학교생활부적응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임병숙(2004). 결손가정 중학생의 학교적응 유연성과 관련된 학교 사회 환경적 보호요인.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임성윤(2005). 중학생이 지각한 가정환경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영수(2003).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 및 가족응집력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 한국기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성순(2006). 초등학생의 친구관계와 학교적응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호성(1987). 자아개념이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효과.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귀연(1993).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응집성, 가족적응성 및 가족 체계 유형이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연호(2004). 부모-청소년 자녀간의 의사소통과 가족의 응집성 및 적응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옥분(1998). 주말부부 어머니의 결혼적응과 아동의 사회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119호 PP. 35-39
- 정현옥(2007). 중학생의 학교생활 적응력에 따른 학교생활태도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조명희·박수선(1999). 자아분화수준에 따른 대학생의 적응. 서원대학교 학생생활연구 제 17집.
- 조창호(1987). 가정환경과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주현정(1998). 고등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미선(2005) 사회적 지지가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선희(2010).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요인. 호남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최지은(2002).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한상분(1992). 아동의 자아개념과 가족체계의 기능유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홍진선(2006). 가족 응집력 및 적응력이 청소년기의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충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국외문헌>

Allport, G W(1961) Pattern and Growth in personalit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135

DuBois, David L., Eitel, Susan K. and Felner, Robert D(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 (2): 405-414

Erikson, E.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Kurd, L. A., Fine, M. A., & Sinclair, R. J.(1995) School adjustment in six graders: Parenting transitions, family climate, and peer norm effects. *Child Development*, 67(3)

Lazarus & Folkman(199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Y Springer Publishing Comany.

Otto, H. A.(1962). What is strong famil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4, 77-80

Olson, D. H.(1986). Circumplex Model VII : Validation studies and FACES III. *Family Process*. Vol. 25, pp. 337-351

Olson, D. H., Portner, J. & Lavee, Y.(1985). FACES(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olution Scales) III. In : Olson, D, H., McCubbin, H. I., Barnes, H., Larsen, A., Musen, M. and Wilson, M. (Eds.). *Family Inventorie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 41

Smets and Hartup.(1988) Systems and Symptoms : Family Cohesion/Adaptability and childhood Behavior Problems."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33-246

Spencer, M. B. (1999). Social and cultural influ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application of and identity-focused cultural ecological perspective. *Educational Psychologist*, 34, 43-57



<부 록>

학교생활적응 영역별 전반적인 경향(N=695)

| 구분 | 문항 번호 | 문항내용 | M | SD |
|----------------|----------|--|------|-------|
| 학교 생활 적응 | 1 | 길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 | 3.25 | 1.215 |
| | 2 |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다. | 2.17 | 1.091 |
| | 3 | 선생님은 내가 자주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2.51 | 1.077 |
| | 4 | 우리 학교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시다. | 3.17 | 1.069 |
| | 5 |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반 선생님들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잘 듣는다. | 3.07 | 1.049 |
| | 6 |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반 선생님들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잘 듣는다. | 3.06 | .989 |
| | 7 | 우리 학교 선생님은 교직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 3.05 | 1.046 |
| | 8 |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귀엽게 여긴다. | 3.20 | 1.031 |
| | 9 | 우리 학교에 존경할 선생님이 한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 | 3.02 | 1.104 |
| | 10 | 나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 | 3.46 | 1.054 |
| | 11 |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지 않으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 2.78 | 1.104 |
| | 12 |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시간에 모두 안다. | 2.80 | 1.044 |
| | 13 | 나는 숙제나 학습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 3.20 | 1.062 |
| | 14 | 나는 예습과 복습을 잘 한다. | 2.67 | 1.094 |
| | 15 | 나는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한다. | 2.74 | 1.117 |
| | 16 |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 2.96 | 1.107 |
| | 17 |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 2.76 | 1.146 |
| | 18 | 나는 수업시간 중에 딴 생각을 한다. | 3.04 | 1.076 |
| | 19 |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 3.32 | .975 |
| | 20 | 나는 학교에서 말기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 3.10 | .989 |
| | 21 | 나는 화장실이나 수돗가에서 줄을 잘선다. | 3.09 | 1.081 |
| | 22 | 나는 당번활동을 할 때에는 열심히 한다. | 3.25 | 1.033 |
| | 23 | 나는 학교 물건을 내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 3.15 | .955 |
| | 24 | 나는 복도를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왼쪽으로 다닌다. | 2.70 | 1.073 |
| | 25 |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꼭 쓰레기통에 버린다. | 3.31 | 1.119 |
| | 26 | 나는 등교시간, 학교시간을 잘 지킨다. | 3.70 | 1.103 |
| | 27 | 나는 우리학교의 모든 행사(체육대회, 소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3.64 | 1.092 |
| | 28 |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 2.33 | 1.131 |
| | 29 |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먼저 사과한다. | 3.48 | 1.020 |
| | 30 | 학교에서 조별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 준다. | 3.21 | .890 |
| | 31 | 나는 학교에서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훼방 놓지 않는다. | 3.37 | .952 |
| | 32 | 내가 어려울 때 친구들이 나를 잘 도와준다. | 3.47 | .934 |
| | 33 | 더 많은 친구들 얻고 싶다. | 3.68 | 1.036 |
| | 34 | 친구들과의 모임에 잘 어울린다. | 3.45 | .968 |
| | 35 | 학급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 3.09 | .906 |
| | 36 | 학교에서 터 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 3.42 | 1.046 |
| 총계 | | | 3.10 | .575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는 여러분의 가정생활과 학교생활 전반에 관한 조사입니다.

이 자료는 연구목적만을 위한 통계자료로만 사용될 것이므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비밀의 보호의 규정에 따라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연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문에는 정답이 없으며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10년 7월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가족학 전공 한윤미

1. 학생의 성별은?

- ① 남() ② 여()

2. 학생의 사는 지역은?

- ① 제주시() ② 서귀포시()

3. 학생의 학교유형은?

- ① 남학교 ② 여학교 ③ 남녀공학

4. 학생의 학년은?

- ① 1학년() ② 2학년() ③ 3학년()

5. 학생의 성적은?

- ① 하() ② 중() ③ 상()

6. 가정형편(경제생활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 ① 하() ② 중() ③ 상()

7.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은(동거가족)?

- ① 부모()
② 부모 + 형제자매
③ 조부모(외조부모) + 부모 + 형제자매
④ 부 + 형제자매
⑤ 모 + 형제자매
⑥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⑦ 형제자매
⑧ 기타

8. 본인을 포함한 학생의 형제 수는? 남(), 여()

9. 부모님의 학력은?

- (1) 아버지: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2) 어머니: ① 초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졸()
⑤ 대학원졸 이상()

10. 부모님의 직업은? (1) 아버지() (2) 어머니()

- ① 전문직(의사, 약사, 간호사, 법조인, 교사, 연구원, 엔지니어, 예술가 등)
② 관리직(5인 이상의 경영주, 부장급 이상 간부, 5급 이상 공무원 등)
③ 사무직(과장급 이하 회사원, 6급 이상 공무원, 경찰 등)
④ 판매-서비스직(판매-서비스직 점원, 보험설계사, 외판원, 조리사 등)
⑤ 생산-노무직(생산 감독, 노동자, 경비, 운전사, 청소, 용역 등)
⑥ 자영업-사업(농업, 어업, 개인사업, 점포운영 등)
⑦ 주부
⑧ 학생
⑨ 기타(구체적으로 _____)
⑩ 없음

A. 다음 문항을 읽고 자신의 가족관계와 더 가깝다고 생각하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
| 1 | 우리가족은 우리가족끼리 더 친하게 지낸다. | | | | | |
| 2 | 우리가족은 자유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좋아한다. | | | | | |
| 3 | 우리가족은 각자의 친구를 인정해 준다. | | | | | |
| 4 | 우리가족은 어려울 때 가족원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 | | | |
| 5 | 우리가족은 공동 활동을 할 때 빠짐없이 모든 가족이 참여한다. | | | | | |
| 6 | 가족끼리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다. | | | | | |
| 7 | 식구 중 누구라도 가족 내에서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다. | | | | | |
| 8 | 우리가족은 문제를 해결할 때 자녀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 | | | | |
| 9 | 우리 집은 상황에 따라 규칙이 바뀔 수도 있다. | | | | | |
| 10 | 자녀가 받는 벌에 대해서 부모님과 함께 의논한다. | | | | | |
| 11 | 집안일을 할 때, 식구 모두가 함께 돌아가면서 한다. | | | | | |
| 12 | 가족원 각자 하는 일에 개방적인 입장을 보인다.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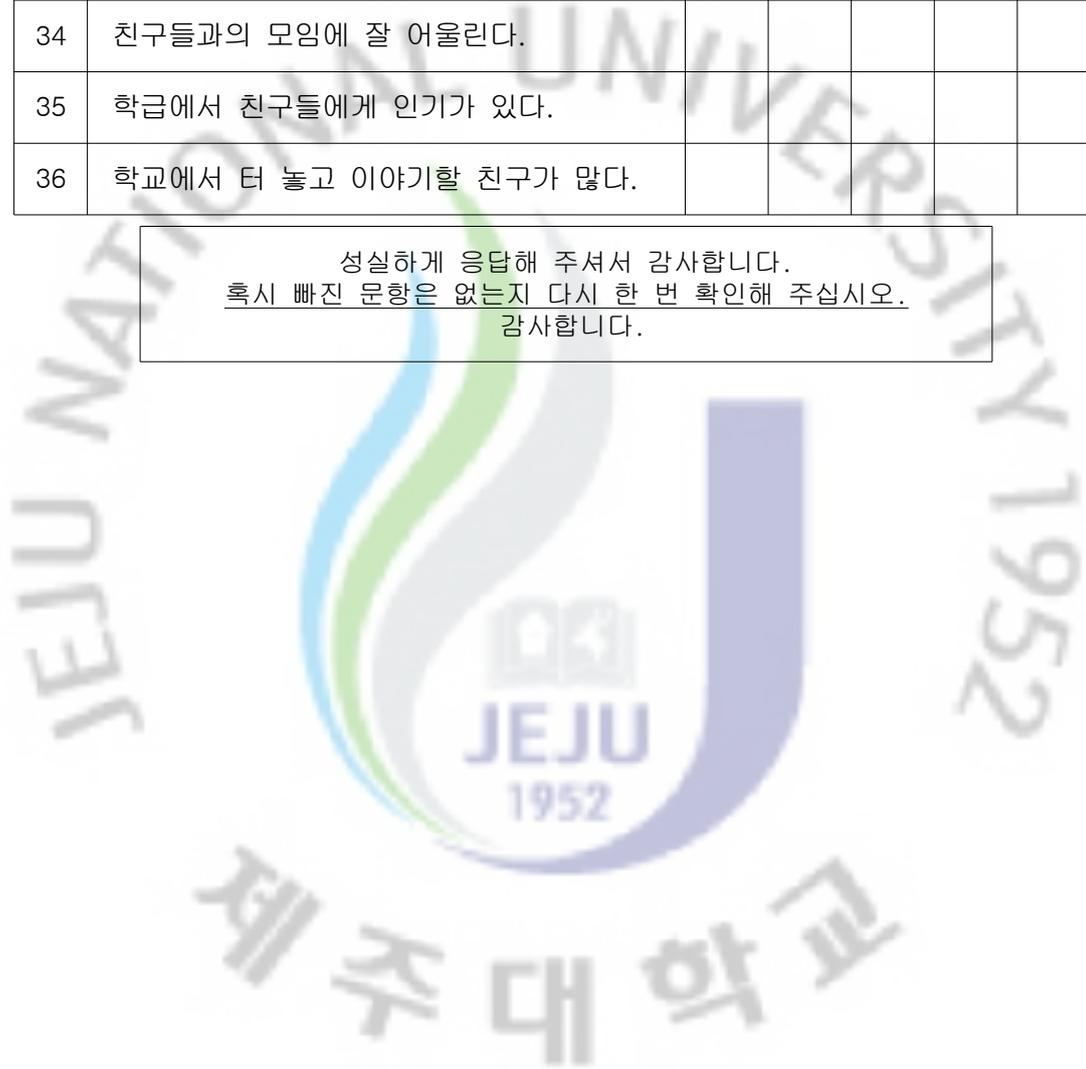
B.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를 알기 위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번호에 V표 해 주십시오.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 | 길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나면 매우 반갑다. | | | | | |
| 2 | 내 마음속의 비밀을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싶다. | | | | | |
| 3 | 선생님은 내가 자주 질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 | | | | |
| 4 | 우리 학교 선생님은 매우 친절하시다. | | | | | |
| 5 |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반 선생님들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잘 듣는다. | | | | | |
| 6 | 교장선생님이나 다른 반 선생님들의 말씀을 바른 자세로 잘 듣는다. | | | | | |
| 7 | 우리 학교 선생님은 교직에 대한 확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 | | | | | |
| 8 |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귀엽게 여긴다. | | | | | |
| 9 | 우리 학교에 존경할 선생님이 한분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 | | | | | |
| 10 | 나는 학교에서 필요한 것을 배우고 있다. | | | | | |
| 11 |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지 않으며,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 | | | | | |
| 12 | 그 시간에 배운 내용을 그 시간에 모두 안다. | | | | | |
| 13 | 나는 숙제나 학습 준비물을 잘 챙겨온다. | | | | | |
| 14 | 나는 예습과 복습을 잘 한다. | | | | | |

| 번호 | 문항 | 전혀 그렇지 않다 | 약간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약간 그렇다 | 매우 그렇다 |
|----|---|-----------|-----------|------|--------|--------|
| 15 | 나는 수업시간에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을 한다. | | | | | |
| 16 |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들은 흥미 있는 것이 많다. | | | | | |
| 17 | 학교생활 중 수업시간이 즐겁다. | | | | | |
| 18 | 나는 수업시간 중에 딴 생각을 한다. | | | | | |
| 19 | 나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있다. | | | | | |
| 20 | 나는 학교에서 맡기는 일을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 | | | | |
| 21 | 나는 화장실이나 수돗가에서 줄을 잘 산다. | | | | | |
| 22 | 나는 당번활동을 할 때에는 열심히 한다. | | | | | |
| 23 | 나는 학교 물건을 내 물건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 | | | | |
| 24 | 나는 복도를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왼쪽으로 다닌다. | | | | | |
| 25 | 나는 휴지나 쓰레기를 꼭 쓰레기통에 버린다. | | | | | |
| 26 | 나는 등교시간, 학교시간을 잘 지킨다. | | | | | |
| 27 | 나는 우리학교의 모든 행사 (체육대회, 소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 | | |
| 28 |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다. | | | | | |
| 29 | 내가 잘못했을 때에는 먼저 사과한다. | | | | | |
| 30 | 학교에서 조별놀이를 할 때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 준다. | | | | | |
| 31 | 나는 학교에서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하거나 훼방 놓지 않는다. | | | | | |

| 번 에 | 문 항 | 전혀 그렇 지 않다 | 약간 그렇 지 않다 | 보통 이다 | 약간 그렇 다 | 매우 그렇 다 |
|--------|--------------------------|---------------------|---------------------|----------|---------------|---------------|
| 32 | 내가 어려울 때 친구들이 나를 잘 도와준다. | | | | | |
| 33 | 더 많은 친구들 얻고 싶다. | | | | | |
| 34 | 친구들과의 모임에 잘 어울린다. | | | | | |
| 35 | 학급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있다. | | | | | |
| 36 | 학교에서 터 놓고 이야기할 친구가 많다. | | | | | |

성실하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빠진 문항은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Influence of a Middle-School-Student-Perceived Family Cohesiveness & Adaptability on Adaptation to School life

Han, Yun-mi

Home Management Studies of the Graduate School
at Jeju National University

Thesis Director: Prof. Kim, Hye-sook

Abstract

This research is aimed at looking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a middle-school-students-perceived family cohesiveness & adaptability and adaptation to their school life targeting junior high school students. In addition, this research looked into at what level of mutually different influence of family cohesiveness & adaptability on adaptation to their school life, and on the basis of the drawn conclusion, this research also is aimed at offering the basis for alternative preparation to promote the level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This research collected the data targeting boys and girls attending junior high schools at Jeju district from July 19 until August 6 ,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f a total of 725 students. This research set a total of 695 questionnaires except 30 copies, which are thought to drop reponses to questions or to be unfaithful responses, as its final analysis subjects among the collected 725 copies of questionnaires. This research processed the collected data statistically using SPSS 12.0 for windows program; in addition, after find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and standard deviation, this research conducted t-test, ANOVA analysis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n relation to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subjects, this research did a survey on gender, residential district, school pattern, school year, school results, family circumstances, cohabiting family, number of siblings, educational background of parents, and parents' vocation, etc.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tudents perceived their family cohesiveness & adaptability at an above-mid level .

Second, it was found that students' level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was generally at an above-mid level. In general, they were found to adapt themselves to well in the order of friendship, relations with teachers, and class attitude

Third, as a result of looking at family cohesiveness subsequent to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in most cases of the first year students in junior high school, the better their school results are, in case of living with parents, in case of having two or more sisters, they are found to perceive the level of family cohesiveness as high,

Fourth, as for family cohesiveness subsequent to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the higher their school results are, the higher their family circumstance are, in case their cohabiting famil is parents, in case of having one sister, in case their fa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tays above a level of a college graduate, and in case their mother's educational background stays above a level of graduate school, they are found to perceive family cohesiveness as high.

Fifth, looking at the adaptation to school life subsequent to socio-demographical variables centering on sub-province, in case of boys' school, in case of the first year student of junior high school, the

better their school results are, and in case of having no sisters, they are found to perceive their relationship with teachers as good.

As for class attitude, in case of male students, in case of the first year student of junior high school, the better their school results are, the better their family circumstances, in case of living with three-generation family mixed with parents, grandparents and siblings, and in case their parents are involved in profession, they perceive their class attitude as high.

As for school regulations, in case of male students, the better their school results are, the better their family circumstances are, in case of having one sister, in case their father's education background stays above the level of graduate school, in case their father is involved in production labor, and in case their mother is involved in profession, they perceived the level of school regulations as high. As for friendship, in case of male students, the better their school results are, and in case their mother is involved in profession, they perceive the friendship with each other, as high. As for relationship with other schoolmates, in case of male students, the better their school results are, the better their family circumstances are, and in case their mother is involved in profession, they generally perceived the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as high.

Sixth, there appear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family cohesiveness & adaptability level to school life in their sub-province. In short, we can interpret that the higher family cohesiveness and higher their adaptability is, they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eachers; their class attitude is good, and they observe school regulations well.

Seventh, There appear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family cohesiveness, family adaptability, and level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meaning that the higher family

cohesiveness and family adaptability, they adapt themselves to school life well.

Eighth,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variable influencing the province of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was found to be family cohesiveness;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igher family cohesiveness, the higher the adaptation to the relationship with teachers.

There appeared a tendency to get better in their class attitude in case of male students, the lower their school grade, the better their school results, and in case of having more than 2 brothers. As for school regulations, students were found to adapt themselves to school regulations well in case of male students, the better their family circumstances, and the higher their family adaptability. Further, as for the relationship with their schoolmates, there appeared a good adaptation to the relationship with schoolmates in case of male students, and in case their mother's job is a housewife.

The above results considered, the students perceive the level of adaptation to school life as high, the higher the level of family cohesiveness & adaptability is, so there needs to be a diverse program development so that they can raise their family cohesiveness & adaptability. In addition, this researcher believes that there's the necessity of contributing to adolescents' healthy growth through one system in combination with family-school-society.